

# 일제하 ‘과학적’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동아일보』, 『조선일보』 수록 용례를 중심으로

조 형 열\*\*

## 머리말

- Ⅰ. ‘과학적’이라는 말의 이용 빈도
- Ⅱ. ‘과학적’이라는 말의 시기별 활용 맥락
- Ⅲ. ‘과학적’이라는 말의 의미 경쟁 양상

##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일제하 대표적 한글신문 2종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과학적’이라는 말이 연도별로 이용되는 빈도, 5년 단위의 각 시기별 활용 맥락, 의미 변화 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거시적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일제하 사상 지형과 학술활동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이 글을 통해 밝힌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 빈도수가 1920년 36건으로 시작하여, 1934년 400건으로 최고점을 기록하였고, 대체로 증가 추세가 이어졌다. 기사 형태상으로 볼 때 사실 보도의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논문을 작성하는 데 (주)퀀트랩 유재명 대표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유 대표는 역사학학교(1차: 2019년 10월 12일, 역사학연구소·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공동주최, 2차: 2021년 6월 26일-7월 31일, 역사학연구소·서강대 디지털역사연구소 공동주최)의 강의를 통해 텍스트 분석 방법을 상세히 가르쳐주었고,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 산출 과정을 일일이 챙겨주었다. 그동안의 도움에 대해 지면을 빌려 깊이 감사드린다.

\*\* 동아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사학전공 조교수(hycho@dau.ac.kr).

뉴스보다는 사실과 기획·연재, 논설, 칼럼 등에서 더 많이 이용되었다. 신문 증면(增面) 경쟁과 함께 학예면이 설치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과학적’이라는 말이 기사 집필자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사용되었고 1930년대가 ‘과학적’ 담론의 확산 시기였다. 둘째, 인접공기어 상위 20개를 분석한 결과, 1기에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소개 차원에서, 2기에는 신간회운동·생활개신운동과 관련하여, 3기에는 연구와 상관성이 높아지면서 행위 내용을 이루는 여러 방법들이, 4기와 5기에는 앞 시기에 비해 당위적으로, ‘과학적’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셋째, 인접공기어를 5개 범주로 구분하여 변화 추이를 검토한 결과, ‘조선’이 주체·대상으로서 중요하게 거론되었고 ‘연구’가 꾸준히 주목받았던 데 비해서 ‘운동’은 1930년대 이후 비중이 줄어들었다. 시간 범주에서는 기본적으로 ‘금일’과 ‘현실’을 위해 과학이 존재해야 한다는 시각이 확인되며, 행위 자세는 ‘연구’, ‘필요’, ‘태도’가 줄곧 높은 빈도를 기록했다. 행위 내용의 경우 1기에 높은 비중을 보인 ‘관찰’과 ‘사회주의’가 대폭 감소하고 3기 이후 ‘분석’과 ‘비평’ 등이 소폭 상승하였는데, 과학 방법의 심화와 함께 비판적 가치가 주목받은 사례이다. 행위 가치·지향 범주에서는 전체 시기동안 ‘과학적’이라는 말이 ‘발달’과 ‘발전’에 대한 희망과 함께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주제어: ‘과학적’, 한글신문, 텍스트 마이닝,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공기어

## 머리말

근대 이후 과학은 동시대인들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적이자 가치로 인식되어왔다. 일제식민지시기부터 자신들이 사는 세상을 ‘과학의 시대’라고 부르기 시작했고,<sup>1)</sup> 이러한 규정이 20세기에 속속 등장했다. 그런데 과학의 중요성을 누구나 말하지만, ‘과학의 시대’에 걸맞은 과학을 갖추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적’이라는 기준을 이루는 실질적 내용이 중세시기 삶의 양식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더라도, 실제 과학과 ‘과학적’이라는 개념은 서구

1) 「科學發展號의 動機」, 『신문계』 2-9, 1914, 2쪽; 「科學의 普及과 그 惠澤」, 『조선일보』 1937년 1월 3일.

의 자연 인식, 기술 발전, 학문과 교육의 성과 등이 수용되면서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기에 따라서, 주체에 따라서 '과학적'이라는 말에 각기 다른 개념과 이해가 내포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과학적'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명사로 “과학의 바탕에서 본 정확성이나 타당성이 있는 것”, 관형사로서 “과학의 바탕에서 본 정확성이나 타당성이 있는” 등이다.<sup>2)</sup>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이자 넓은 뜻으로 학(學) 일반이고 좁은 뜻으로 자연과학을 이르는 과학이라는 말에 의해 규정되지만, 바르고 옳은 성질을 뜻하는 정확성과 사물의 이치에 옳고 가치가 있는 판단을 말하는 타당성이 그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일제하에 사용되었던 정의는 조금 다르다. 두 가지의 경우를 예시로 살펴보자. 첫 번째로 “보통 과학이라 하면 조직적이라는 의미로 말하며, 또 철학에 대해 과학적이라 할 때는 주로 자연현상의 일을 연구한다는 뜻인데, 자연과학적이라 함과 다르다”는 설명이 있다.<sup>3)</sup> 두 번째로 “개개의 사물에 대하여 질서가 바르게 계통을 세워 논술하여 증명하는 일”이라는 해설도 있다.<sup>4)</sup> 첫 번째의 경우에 '과학적'이라 함은 조직된 상태이자 자연의 변화를 연구한다는 측면이, 두 번째는 일정한 체계 아래 개별적인 사실을 증명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방법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전자는 자연에 대한 관찰이, 후자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바탕으로 법칙의 수립을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다.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2022년 12월 18일 검색).

3) 崔綠東, 『現代新語釋義』, 文昌社, 1922(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 2023년 1월 20일 검색).

4) 編輯部, 『新語辭典』, 『朝鮮農民』 3, 1926(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 2023년 1월 20일 검색).

근대 이후 과학과 ‘과학적’인 것의 담론적 전개와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개별적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과학 인식과 과학론 등에 대한 연구를 모은 연구서가 출간되었고, 일제 하 과학 담론의 전개과정을 시기적으로 검토한 연구도 있다.<sup>5)</sup> 또한 과학소설 등 문학작품에서 과학 담론을 보여주는 연구,<sup>6)</sup> 학술사 차원에서 ‘과학적’ 학문의 출현과 그 성격에 대해 분석한 연구 등도 확인할 수 있다.<sup>7)</sup>

그러나 선행연구들이 근대 이후 과학과 ‘과학적’인 것의 수용과 의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하고자 했지만, 언제부터 이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졌

- 
- 5) 황종연 엮음, 『문학과 과학 1 자연·문명·전쟁』, 소명출판, 2013; 황종연 엮음, 『문학과 과학 2 인종·미술·국가』, 소명출판, 2014; 황종연 엮음, 『문학과 과학 3 영혼·생명·통치』, 소명출판, 2015; 김근배, 「20세기 식민지 조선의 과학과 기술-개발의 씨앗?」, 『역사비평』 56, 2001; 김우필·최혜실, 「식민지 조선의 과학·기술 담론에 나타난 근대성-인문주의 대 과학주의 합리성 논의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34, 2010; 김태호, 「과학영농의 깃발 아래서-박정희 시대 농촌에서 과학의 의미」, 『역사비평』 119, 2017.
- 6) 백지혜, 「1910년대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과학’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14, 2005; 황종연, 「신없는 자연-초기 이광수 문학에서의 과학」, 『상허학보』 35, 2012; 김주리, 「1910년대 과학, 기술의 표상과 근대 소설-식민지의 미친 과학자들 (2)」, 『한국현대문학연구』 39, 2013; 송명진, 「근대 과학소설의 ‘과학’ 개념 연구-박영희의 「인조노동자」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2-2, 2014; 오윤호, 「근대 과학 지식의 재현과 진화론적 상상력-이광수의 「무정」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52, 2015; 최애순, 「1930년대 『과학조선』과 식민지 조선의 발명·발견에 대한 기대」, 『한국근대문학회』 22-1, 2021.
- 7) 윤대석, 「김기림 시론에서의 ‘과학」, 『한국근대문학회』 7-1, 2006; 서은주, 「과학으로서의 문학 개념의 형성과 ‘知’의 표준화-주요 ‘문학개론서’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50, 2010; 김중준, 「일제시기 ‘역사의 과학화’ 논쟁과 역사학계 ‘관학아카데미즘’의 문제」, 『한국사학보』 49, 2012; 정종현, 「단군, 조선학 그리고 과학 : 식민지 지식인의 보편을 향한 열망의 기호들」, 『한국학연구』 28, 2012; 허재영, 「근대 계몽기 과학 담론 형성과 일제강점기 ‘과학적 국어학」, 『코기토』 78, 2015; 김병문, 「과학으로서의 언어학이라는 난점-1930년대 홍기문의 언어 연구 검토」, 『대동문화연구』 90, 2015; 김병문, 「과학으로서의 언어학이라는 난점(2)-안환희의 1910-20년대 조선어 연구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91, 2020; 심희찬, 「식민사학 재고-과학 담론과 식민주주의의 절합에 대해」, 『인문학연구』 63, 2022.

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며 사용되었는지, 양적 연구를 통해 충분히 검토된 바는 없었다. 과학과 '과학적'인 것의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활용한 정량적 연구를 시도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과학이라는 말은 신문 기사 검색에 따르면 1883년부터 확인되지만,<sup>8)</sup> '과학적'이라는 말은 대한제국기까지 사용되지 않았다. 과학에 근거한 일정한 자세를 의미하는 '과학적'이라는 말이 일제식민지시기에 중요하게 등장한 것이다.<sup>9)</sup> 따라서 과학이라는 개념의 수용 양상을 살펴보는 것보다 방법의 의미가 포함된 '과학적'이라는 말의 활용 양상을 일제하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근대 과학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도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과학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일제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사에 실린 용례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1920년부터 1940년까지 '과학적'이라는 말의 활용 양상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해볼 것이다.<sup>10)</sup> 이 글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과학적'이라는 말의 시기별 이용 빈도와 공기어를 통한 맥락적 이해 등 두 가지이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 텍스트로 공개된 신문기사에 대한 한자어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용례를 추출하였고, 이들 기사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8) 『歐羅巴洲』, 『漢城旬報』 1883년 11월 10일.

9) '-적'이 일본어 접미사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적'을 사용한 것은 영어의 접사 '-tic'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김정덕, 『日本語 接尾辭 的』에 관한 一考察-夏目漱石 小説作品의 用例를 中心으로-, 『일본근대학연구』 29, 2010, 23쪽.

10) 텍스트 마이닝 방법에 따른 한국근현대사 분야의 선행연구로는 허수, 「어휘연결망을 통해 본 '제국'의 의미-제국주의'와 '제국'의 의미-제국주의'와 '제국'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7, 2014; 허수,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본 1980년대 '민중'-『동아일보』의 용례를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18, 2016; 이재연, 「키워드와 네트워크-토픽 모델링으로 본 「개벽」의 주제 지도 분석, 『상허학보』 46, 2016;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디지털 인문학과 근대 한국학 : 디지털의 눈으로 한국학을 읽다」, 소명출판, 2020 등 참고.

공기어(共起語)와 앞뒤 다섯 어절 내의 인접공기어를 한 기사 내에서 나올 확률을 표시한 - 공기 빈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로드(load)의 크기에 따라 순위의 추이를 검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5년을 기준으로 시기별로 분석하여 ‘과학적’이라는 말의 의미 변화를 파악할 것이며, 이 가운데 과학의 대상과 방법이 어떠한 식으로 변화되어 가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sup>11)</sup>

## I. ‘과학적’이라는 말의 이용 빈도

‘과학적’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빈도를 파악하기 위해 검토 대상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추출한 기사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두 5,163건이다. 1920년 『동아일보』에 23건, 『조선일보』에 13건이 나와 36건이 확인되었는데, 1934년에 400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1940년까지 약간의 감소는 있었으나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표 1>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추출 기사 수와 전체 기사 수

연도	추출 기사 수			전체 기사 수		
	합계	동아	조선	합계	동아	조선
1920	36	23	13	29,950	18,828	11,122
1921	115	50	65	63,596	37,097	26,499
1922	81	80	1	47,470	44,248	3,222
1923	124	60	64	91,103	47,211	43,892
1924	91	50	41	85,042	42,157	42,885

11) 분석 대상이 된 데이터의 한계가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한자어가 아닌 경우, 신문 자체에 誤植이 있었거나 텍스트로 잘못 옮긴 경우 등이 공기어 집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연도	추출 기사 수			전체 기사 수		
	합계	동아	조선	합계	동아	조선
1925	129	61	68	110,635	53,696	56,939
1926	145	76	69	94,833	45,052	49,781
1927	284	130	154	106,375	51,144	55,231
1928	174	81	93	84,540	50,982	33,558
1929	258	96	162	111,102	53,569	57,533
1930	371	128	243	99,614	37,821	61,793
1931	364	166	198	116,782	57,487	59,295
1932	210	103	107	89,605	59,331	30,274
1933	248	110	138	111,410	66,047	45,363
1934	400	198	202	125,081	66,945	58,136
1935	388	201	187	130,878	69,281	61,597
1936	354	161	193	119,537	52,578	66,959
1937	367	153	214	120,938	52,059	68,879
1938	382	176	206	157,819	86,914	70,905
1939	362	211	151	157,407	85,029	72,378
1940	280	162	118	92,969	51,028	41,941
합계	5,163	2,476	2,687	2,146,686	1,127,964	1,018,182

일단 추출 기사 수의 증감에 신문 경영상의 조건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즉 발행 상황에 따라 전체 기사 수가 줄어든 시점에 추출 기사 수도 감소하였고, 다르게 말하면 전체 기사 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추출 기사 수도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1928년의 174건은 갑자기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인데, 이는 「제남(濟南) 사건의 벽상관(壁上觀)」 기사와 관련하여 『조선일보』의 133일 정간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1936-1937년 『동아일보』 추출 기사 수의 감소는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279일 동안 진행되었던 정간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sup>12)</sup> 그리고 1940년 280건의 수치는 두 신문 모두 8월에

12) 박찬승,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3 언론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폐간된 조건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 신문지 보존·보유 문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1922년이다. 압수된 기사와 1922년 12월 발행된 지면 일부만 남아 있을 뿐 대부분이 분실된 상태이다.<sup>13)</sup>

이렇듯 ‘과학적’이라는 말이 이용된 빈도를 개략적으로 확인하는 데 제약 조건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1927년 이후 한 차례 증가 추세가 있었고, 1934년 이후 앞서보다 더 큰 폭의 변동이 있었던 것은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그런데 이 시점은 1927년의 전체 기사 수가 106,375건이고, 1934년이 125,081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추출 기사 수의 증가를 전체 기사 수의 양적 팽창에 기인했다고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과학적’이라는 말이 이 시기에 특별한 이유 때문에 주목받았던 것이다. 또한 1930년까지 약 1,800여 개의 기사가 확인되고, 그 뒤 10년 동안 두 배 가까운 숫자의 기사가 추출되었으니 이용 빈도상에서 1930년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도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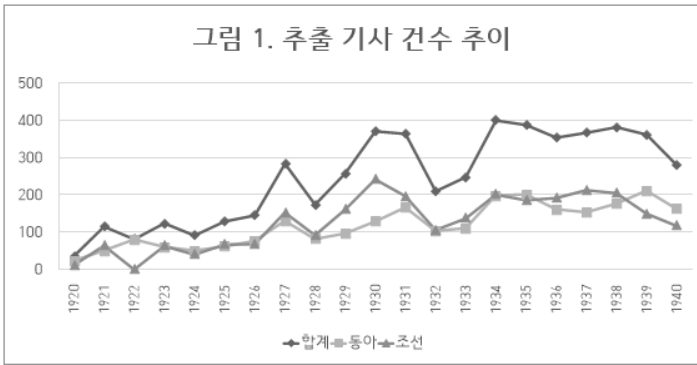
다음으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기사 수를 비교해보면, 1920년부터 1925-1926년 무렵까지는 『동아일보』가 ‘과학적’이라는 말을 퍼뜨리는데 비중 있는 역할을 하였고, 1927년부터 1931년 시기에는 『조선일보』가, 1932년부터 1936년 무렵까지는 두 신문이 비슷하게, 1939년 이후에는 『동아일보』가 다소 우위에서 ‘과학적’ 담론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개는 『동아일보』가 창간사를 통해 문화주의를 제창하며 과학의 발달을 언급한 것과,<sup>14)</sup> 『조선일보』가 신간회 활동과 생활개선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과학적 전술’을 지향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겠다.<sup>15)</sup> 1930년대의 경

2009, 329쪽.

13) 조선일보100년사편찬실, 『조선일보100년사(상) 민족과 함께 한 세기』, 조선일보사, 2020, 109쪽.

14) 「主旨를 宣明하노라」, 『동아일보』 1920.4.1.

15) 「투쟁과 과학적 전술」, 『조선일보』 1927.1.8.



우 '과학적'이라는 말이 모두가 활용해야 할 개념으로 활발하게 이용되다가, 총독부의 전시 언론통제와 탄압이 강화되는 가운데 폐간 조치에 대해서 거부와 순응의 온도차를 보였던 두 신문의 차이가<sup>16)</sup>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추측해볼 수 있다. '과학적'이라는 말이 총독부 조치에 순응적인 입장에서 사용될 수 없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국책'을 강조하면서 '과학적' 활동을 주문하는 경우도 확인된다.<sup>17)</sup>

1927년과 1934년 두 차례의 증가세를 바탕으로 대체로 1930년대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주 사용되었던 '과학적'이라는 말은, 그렇다면 주로 어떤 기사 형태에서 자주 등장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즉 단순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지, 아니면 신문의 기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설인지, 각종 기명·무기명 칼럼인지, 기사 형태를 통해 그 말이 단순 사실로 제기되었는지, 주장을 위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16) 장신, 『조선·동아일보의 탄생』, 역사비평사, 2021, 197-235쪽.

17) 「전쟁과 과학」, 『조선일보』 1940.5.23. 한 대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의 전쟁은 과학의 전쟁으로 승패는 과학적 두뇌의 우열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또 이 전쟁에 응용하는 과학적 두뇌는 상시에는 문화축진의 근본 요소가 되어서 인류문명의 진보에 수요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표 2〉 기사 형태별 추출 기사 수

연도	동아			조선		
	사설	뉴스	기획·연재, 칼럼, 논단	사설	뉴스	기획·연재, 칼럼, 논단
1920	2	2	8	0	4	3
1921	17	2	24	2	21	40
1922	5	5	42	0	0	0
1923	10	5	15	2	13	42
1924	12	12	17	5	11	21
1925	15	30	7	11	20	27
1926	9	30	29	4	29	26
1927	12	37	63	16	47	84
1928	7	20	49	3	17	59
1929	8	17	57	22	25	104
1930	4	20	77	10	47	161
1931	13	38	85	13	60	111
1932	1	30	62	10	34	57
1933	11	32	51	4	36	90
1934	21	59	91	9	56	118
1935	10	64	105	7	74	86
1936	4	59	74	7	66	105
1937	5	49	81	4	73	114
1938	9	63	80	4	85	82
1939	8	79	100	5	72	52
1940	11	46	85	1	46	55
합계	194	699	1202	139	836	1437

〈표 2〉는 ‘과학적’이라는 말이 포함된 추출 기사를 형태별로 분류한 것이다. 분류는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의 구분을 그대로 따랐는데, 분류상의 오류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 1921년의 경우 뉴스가 21건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원문을 확인해보면 대부분 사설이나 기획·연재이다. 한편 소설·광고에 ‘과학적’이라는 말이 포함된 경우는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위 데이터는 대략적 경향을 파악하는 용도로 한정해야 한다.

먼저 사실 수는 『동아일보』 194건, 『조선일보』 139건으로 집계되었다. 뉴스는 각각 699건, 836건, 기획·연재, 칼럼, 논단은 각각 1,202건과 1,437건이다. 이상을 각 형태별로 종합해보면 사실은 333건, 뉴스는 1,535건, 기획·연재 등은 2,639건이다. 기획·연재 등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과학적'이라는 용어가 단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보다 특정한 의식 또는 인식의 형성을 위해 자주 활용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사실과 기획·연재 등을 합치면 3,000여 건에 이르는데 이는 5,163건의 약 60% 가까이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한편 <표 1>을 통해 1927년과 1934년이 두 차례 증가세의 시작점이라고 했는데, 이 시기에 기획·연재 형태의 기사가 증가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수록 기사 건수가 증가한 주된 원인을 '과학적' 담론의 폭넓은 활용으로부터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30년 이후에 기획·연재 형태의 기사가 각 신문마다 매년 거의 100건 가까이 나오는 것은, <표 1>에 나타났듯이 일차적으로 전체 기사 수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1930년대에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상업화 경향을 보이면서 광고를 많이 싣고자 증면(增面)에 힘썼다.<sup>18)</sup> 전체 기사 수에는 광고도 포함되어 있고 소설도 집계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지만, 읽을거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하는 입장에서 학예면의 약진이 전체 기사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고, 학예면의 학술문화 기획이 '과학적' 담론의 확산에 일정하게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sup>19)</sup>

18) 장신, 앞의 책, 166쪽.

19) 다음 언급이 당시 학예면의 담론 생산으로서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원래 신문은—잡지도 그런 것이 많지만—문화적 의의보다 더 많이 정치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고 오직 그 학예면만이 조선서는 특별한 문화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I 장에서 검토한 사항을 정리해보자. 첫째, 1920-1940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과학적’이라는 말의 이용 빈도를 검토해본 결과 1920년에 함께 36건이었던 것이, 1927년에 284건, 1934년에 400건으로 최고점을 기록하며 정간 등 신문의 경영상 여건이 영향을 미쳤음에도 대체로 증가 추세가 이어졌다. 1920년대에 비해서 1930년대에 ‘과학적’ 담론이 확산되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과학적’이라는 말은 기사 형태 상으로 볼 때 사실을 보도하는 뉴스보다는 입장·주장을 담은 사설과 기획·연재, 논설, 칼럼 등을 합친 쪽에서 더 많이 이용되었다. 여기에는 1930년대 이후 신문 증면 경쟁이 일기 시작하면서 학예면도 함께 확대된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과학적’ 담론이 기사를 작성하는 주체에 의해 의식적으로 사용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1920-1940년 사이에 나타난 이와 같은 결과는 21년 종합 전체 기사 수 가운데 추출 기사 수가 0.24% 가량 되고, 가장 많이 이용된 1934년의 경우에도 0.32%였다. ‘과학적’이라는 말이 이 시기를 지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학술 잡지도 아닌 일반 매체에서 ‘과학적’이라는 말을 이용한 기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통일된 데이터가 없어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1920-1940년 사이의 수치는 최소한 해방직후부터 1960년까지 시기보다 높았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세 개 신문의 데이터를 검

---

지난해에 이르러 4월의 조선일보 속간과 그 후에 동아일보 학예면의 부활과 한 가지 신문 학예면은 점차 독특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으며 서로 지지 않게 열심히 꾸준하게 여러 가지 논문 문예평론 등을 쉬는 날 없이 게재해온 것은 시들하던 문화운동에다 많은 활기를 주었다 하겠다. 또 신문 자체로 보아서도 모든 기사가 다 판에 박은 듯이 흡사한 지금 한 신문으로서의 특점 장점을 그래도 다소 나타내는 것은 오직 이 학예면인만치 새해에도 조선 신문의 학예면은 더욱 더 중대성을 가지고 발전될 것이라 믿는다.” 黃旭, 「1933년도 조선문화운동 총평」(5), 『동아일보』 1934.1.24.

색할 수 있는데 16년 동안의 합계는 3,707건으로 각각 1,074건, 1,248건, 1,395건 등이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가장 높은 기사 수를 보인 1957년에 합계가 483건이었고, 각각 147건, 143건, 193건을 기록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합계는 336건으로 1920-1940년 시기의 최고 건수인 400건을 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1961년 이후 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 II. ‘과학적’이라는 말의 시기별 활용 맥락

‘과학적’ 담론의 이용 빈도를 개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II장에서는 공기어를 통해 각 시기별로 어떠한 말들이 ‘과학적’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과학적’이라는 말의 활용 맥락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5,163건의 추출 기사를 바탕으로 ‘과학적’이라는 말이 사용된 용례를 수집하여 공기어와 인접공기어를 뽑아보았다. 두 가지를 모두 조사해 본 것은 기사 전체에서 공기어를 뽑을 때와 앞뒤 인접 어절 5개 안의 인접공기어를 뽑을 때의 차이, 그리고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좋을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함이었다. 상위 50개 단어를 뽑아 비교해본 결과가 아래 제시한 <표 3>이다.

<표 3> 1920-1940년 추출 기사의 상위 50개 공기어와 인접공기어

순위	공기어	인접공기어
-10	必要, 事實, 勿論, 問題, 同時, 朝鮮, 研究, 意味, 以上, 結果	研究, 方法, 科學, 必要, 智識, 態度, 事實, 朝鮮, 精神, 問題
-20	社會, 努力, 生活, 關係, 自己, 發見, 方法, 發達, 發展, 今日	認識, 批評, 勿論, 結果, 同時, 根據, 生活, 發達, 社會, 思想
-30	科學, 世界, 如何, 不過, 時代, 完全, 目的, 存在, 理解, 現在	基礎, 理論, 社會主義, 意味, 說明, 今日, 發見, 知識, 努力, 發展

순위	공기어	인접공기어
-40	人間, 要求, 程度, 主張, 說明, 歷史, 自然, 思想, 過去, 重要	以上, 分析, 歷史, 現實, 現代, 普及, 文學, 理解, 組織, 進步
-50	態度, 原因, 使用, 現實, 內容, 理由, 精神, 組織, 利用, 傾向	證明, 觀察, 應用, 利用, 哲學, 迷信, 主張, 藝術, 要求, 自己

편의상 순위를 10개 단위로 묶어 나열하였고, 공기어와 인접공기어 모두 겹치는 것은 인접공기어 쪽에 굵은 글씨로 표시했으며, 공기어에만 나오는 것은 이탤릭체로, 인접공기어에만 있는 것은 밑줄로 표시했다. 공기어와 인접공기어의 상위 50위가 중복되는 것은 모두 31개이다. 그러므로 이 31개는 ‘과학적’이라는 말이 이용될 때 비교적 중요하게 같이 사용되는 단어이다. 그런데 공기어와 인접공기어 둘 중의 어느 쪽이 ‘과학적’이라는 말의 활용 맥락과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판단하는 목적이라면, 31개 공통 단어보다 서로 다른 19개 단어를 검토하는 것이 유용하겠다.

공기어에는 관계(14위), 세계(22위), 여하(23위), 불과(24위), 시대(25위), 완전(26위), 목적(27위), 존재(28위), 30위(현재), 인간(31위), 정도(33위), 자연(37위), 과거(39위), 중요(40위), 원인(42위), 사용(43위), 내용(45위), 이유(46위), 경향(50위) 등이 공기어에만 포함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여하, 정도, 중요, 사용, 내용 등은 특별한 시대적 맥락과 의미를 갖는 말이라고 보기 어렵다. 문장 내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표현의 일종이다. 반면에 인접공기어에는 지식(5위), 인식(11위), 비평(12위), 근거(16위), 기초(21위), 이론(22위), 사회주의(23위), 지식(28위), 분석(32위), 현대(36위), 보급(37위), 문학(38위), 진보(40위), 설명(41위), 관찰(42위), 응용(43위), 철학(45위), 미신(46위), 예술(48위) 등 ‘과학적’이라는 말의 활용 방식을 이해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될 개념어가 다수 포함되었다. 따라서 기사 전체의 공기어보다는 앞뒤 어절 5개 이내의 인접공기어를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인접공기어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과학적’이라는 말의 활용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 전체 시기 인접공기어 상위 50개를 분야별로 구분해 볼 것이다. 인접공기어에는 대략 다섯 영역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등장한다. ① 주체 및 대상과 관련된 말로 조선, 생활, 사회, 역사, 문학, 철학, 미신, 예술, 자기 등이다. 이는 ‘과학적’인 행동을 하는 주체가 될 수 있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② 시간과 관련된 말로 금일, 현실, 현대 등이 포함된다. 전체 기간의 인접공기어 상위 50개 가운데에는 세 개밖에 없지만 과거, 현재 등도 이 범주에 묶일 수 있다. ③ 직접적 행위의 자세와 관련된 말로 연구, 필요, 태도, 인식, 노력, 보급, 주장, 요구 등이다. 이는 ‘과학적’인 행동의 일종의 상위 개념으로 상정해 보았다. ④ 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말들로 방법, 비평, 근거, 기초, 사회주의, 설명, 발견, 분석, 이해, 증명, 관찰, 응용, 이용 등이다. 어쩌면 ‘과학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역이 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 각종 과학의 방법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⑤ 행위의 가치와 지향 등을 담은 말들로 지식, 사실, 정신, 결과, 발달, 사상, 의미, 발전, 진보 등이다. ‘과학적’ 행동으로 얻은 결과를 포용하는 범주이다. 이상의 분류는 각 범주 사이에 중복 등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분류 자체를 고정된 정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분석 도구로 상정하는 것이므로 주체·대상, 시간, 행위 자세, 행위 내용, 행위 가치·지향 등의 의미에 집중하려고 한다.

둘째, 인접공기어를 5년 단위로 나눠서 살펴볼 것이다. 1920-1924년(1기), 1925-1929년(2기), 1930-1934년(3기), 1935-1939년(4기), 1940년(5기)과 같이 나누어서, 1920년대 전반기와 후반기, 1930년대의 변화를 충실히 살펴보고자 한다. 1940년의 경우 4기와 함께 묶어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5년마다 어떠한 인접공기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검토함으로써 ‘과학적’이라는 말의 의미 변화를 추적해볼 것이다.

〈표 4〉 1920-1924년(1기)의 연도별 인접공기어 상위 20개

순위	1920	1921	1922	1923	1924
-10	吾人, 研究, 觀察, 決心, 著作, 國家, 方法, 書物中, 增進, 必要	社會主義, 研究, 主張, 智識, 文明, 朝鮮人, 吾人, 發達, 教育, 必要	智識, 社會主義, 研究, 基礎, 文明, 發達, 言語, 如何, 哲學, 思想	社會主義, 智識, 哲學, 研究, 事實, 科學, 知識, 方法, 觀察, 精神	智識, 研究, 發明, 態度, 科學, 迷信, 普及, 生活, 科學的智識, 權威
-20	正確, 基礎, 通俗的, 哲學者, 手段, 熱心, 假定的者多, 鬪爭의神話, 機械油	基礎, 調查, 社會, 哲學, 希望, 戰爭, 理想, 同時, 資本論, 主義	人生, 吾人, 天才, 事實, 空想的, 社會生活, 特徵, 說明, 改善, 關係	基礎, 結果, 唯物史觀, 如斯, 使用, 目的, 社會, 事物, 進步, 科學者	科學的教育, 思想, 科學的記憶, 科學的社會, 科學的經營, 探勝, 方法, 朝鮮, 必要, 法則

〈표 4〉는 1920-1924년 시기 인접공기어 상위 20개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 기간은 아직까지 ‘과학적’ 담론이 확고히 자리 잡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1920년대 후반 및 1930년대와는 확연히 다른 추세를 보인다. 일단 전체 시기 인접공기어 50위와 비교했을 때, 1921년부터 1923년까지 상위에 사회주의 항목이 있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모두 3·1운동의 여파로 개조사상의 소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21년에 자본론, 1922년에 공상적, 1923년에 유물사관 항목이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sup>20)</sup>

20) 다음 기사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다. 연재 기사가 많기 때문에 기사 제목과 수록 연도만 표기한다. 「근대 사회주의의 발생」(『조선일보』 1920); 「산데가리즘과 흑 실패」(『조선일보』 1920); 「최근 佛國의 사상계」(『조선일보』 1921); 「사회주의와 문화주의」(『조선일보』 1921); 「사회주의의 三變遷」(『동아일보』 1921); 「歐洲사상의 유래」(『동아일보』 1922); 「사회주의와 개인주의」(『동아일보』 1922); 「말크스의 유물사관」(『동아일보』 1922.4.28); 「막스 사상의 개요」(『동아일보』 1922년); 「구미각국의 사회운동」(『조선일보』 1923).

다음으로 다섯 범주에 해당하는 단어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중심에 있는지 살펴보면, 주체·대상을 이르는 말은 그다지 높은 순위에 오르지 못했다. 오인이 1920년에 1위, 1921년에 7위, 1922년에 12위에 있지만, 중요한 공기어이자 인접공기어 가운데 하나인 조선은 1924년에 18위에 있고, 조선인이 1921년에 6위로 포함되었을 뿐이다. 게다가 시간을 의미하는 항목도 상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1기에서는 '과학적'이라는 말이 당시 식민지 조선의 현재 또는 과거와 결합되어 구체적으로 이용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행위 자세의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연구되어야 하고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미의 활용 양상은 충분히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위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찰, 기초, 조사 등이 꾸준히 상위에 포진되었고, 행위의 가치·지향의 측면에서 발달과 진보, 특별히 지식의 의미가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종합해본다면, 1기에는 '과학적'인 것이 소개 차원에서 거론되고, 그리고 사물을 자세히 파악하는 기본적인 방안으로서 이해되고 활용되었다고 판단된다.

〈표 5〉 1925-1929년(27기)의 연도별 인접공기어 상위 20개

순위	1925	1926	1927	1928	1929
-10	研究, 思想, 朝鮮人, 科學, 生活, 方法, 智識, 努力, 向上, 朝鮮	精神, 教養, 研究, 智識, 說明, 必要, 迷信, 武器, 知識, 綱領	方法, 研究, 態度, 朝鮮, 必要, 理論, 社會, 事實, 科學, 意味	必要, 基礎, 社會, 研究, 文藝, 單純, 態度, 智識, 方法, 個人	研究, 必要, 智識, 社會, 朝鮮, 發達, 努力, 不足, 認識, 現實
-20	誤認, 迷信, 運動, 普及, 法則, 精神, 教養, 今日, 必要, 理解	普及, 朝鮮, 事實, 問題, 生活, 運動, 發達, 努力, 證明, 思想	藝術, 文藝, 發見, 問題, 普及, 問者, 飲酒問題, 批評, 商品	科學, 萬全, 目的, 嚴肅, 生活, 勇氣, 忍耐, 知識, 朝鮮人, 思想	事實, 勿論, 今日, 主張, 紹介, 觀察, 民衆, 發展, 思想, 迷信

2기를 정리한 <표 5>에서는 1기의 사회주의처럼, 어느 것 하나가 불쑥 솟아오른 경우가 없다. 그렇지만 범주별로 본다면 약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주체·대상과 관련해서는 조선인과 조선이 상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항목이 포함되었다. 사회는 조선 전체를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황과 조건 및 주체의 의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말이라는 점에서,<sup>21)</sup> ‘과학적’이어야 하는 주체가 미약하게나마 분화되는 양상을 반영한다. 또한 1928년에 개인이, 1929년에 민중이 포함된 것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학적’인 대상과 관련해서는 문예와 예술이 1927년부터 순위에 집계된 것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카프(KAPF)의 활동과 함께 문예·예술 평론이 활발하게 전개된 상황을 반영한다.<sup>22)</sup> 또한 생활과 미신의 빈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신에 대한 ‘과학적’ 공박과 생활의 개선 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최현배의 「조선민족 경쟁의 도」가 『동아일보』를 통해 장기 연재되었던 것, 1920년대 후반부터 생활개신운동이 전개되었던 것, 신간회 활동 등을 통해 조선인 생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방도가 무엇인지 모색하는 노력이 심화되었던 것 등을 배경으로 들 수 있다.

시간과 관련해서는 1925년과 1929년에 금일 항목이, 1929년에 현실 항목이 포함되었다. 1기에 비해서 ‘과학적’ 담론이 현재와 결합하는 정도가 강해졌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행위의 내용과 관련해서 연구·태도·인식 등이

21) 사회 개념의 성립에 주목한 연구로서 김현주, 『사회의 발견 : 식민지기 ‘사회’에 대한 이론과 상상, 그리고 실천(1910-1925)』, 소명출판, 2013 참조.

22) 다음과 같은 기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문예의 비평의 과학적 태도」(『조선일보』 1927); 「미술 영역에 在한 주체이론의 확립」(『조선일보』 1927); 「푸르예술의 三分野와 其 장래」(『조선일보』 1928); 「조선의 현실과 문단의 성질」(『동아일보』 1928).

많이 등장하는 것, 운동과 보급이 1925년부터 1927년까지 꾸준히 포함된 것, 그리고 운동이 비교적 높은 순위에 있는 것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1기에서도 물산장려운동 당시 ‘과학적’인 활동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전개되었는데,<sup>23)</sup> 2기에 들어서 운동과 관련해 ‘과학적’ 담론이 유포되는 경향이 눈에 띄게 드러났다.<sup>24)</sup>

행위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찰이 후퇴하고 법칙, 이해, 이론, 증명, 비평 등이 약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행위의 가치·지향과 관련해서는 발달, 발전, 향상, 정신, 사상 등이 그대로 강조되었다. 행위의 내용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은 ‘과학적’인 것을 적용하는 방식이 변화되어 갔음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3기 이후와 관련해서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바이다.

2기에서는 ‘과학적’인 것의 소개에만 그쳤던 1기와 달리 현실과 생활을 타파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접근이 비교적 활발했다. 그 가운데 ‘과학적’인 것이 무엇인지 실제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현실에 대한 법칙적 이해라든가 현상적 관찰의 수준을 넘어서는 각종 방법적 내용 등이 모색되었다. 또한 문예·예술 비평 등을 통해 ‘과학적’ 담론이 문화·학술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3) 물산장려운동에 대해서는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엮음, 『논쟁으로 읽는 한국사 2 근현대』, 역사비평사, 2009, 64-70쪽 참조.

24) 이와 관련해서는 신간회 활동 시기의 각종 논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신간회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 김영진, 「1927년 하반기 식민지 정치운동 논쟁 : 청산론 논쟁 재검토」, 『역사연구』 42, 2021; 윤덕영, 「조선중앙사회단체협의회 논쟁과 합법운동론」, 『역사와현실』 118, 2020; 임경석,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 상설·비상설 논쟁」, 『역사비평』 128, 2019 참조.

〈표 6〉 1930-1934년(3기)의 연도별 인접공기어 상위 20개

순위	1930	1931	1932	1933	1934
-10	研究, 方法, 科學, 問題, 必要, 說明, 應用, 發達, 事實, 生活	研究, 智識, 方法, 根據, 發達, 朝鮮, 社會, 同時, 觀察, 進步	研究, 態度, 方法, 事實, 必要, 批評, 綴字法, 科學, 根據, 結果	研究, 文學, 批評, 現代, 世界觀, 理論, 證明, 哲學, 根據, 問題	研究, 方法, 態度, 事實, 朝鮮, 科學, 批評, 傾向, 必要, 認識
-20	態度, 發見, 同時, 哲學, 結果, 藝術, 生活方式, 利用, 理論, 發明	科學, 技術, 歷史, 必要, 問題, 今日, 努力, 結果, 發見, 勿論	理想, 社會主義, 進步, 理論, 朝鮮, 如斯, 應用, 滿洲, 輸入, 養成	分析, 朝鮮, 方法, 現代的, 作品, 認識, 說明, 人間, 理解, 發達	非難, 文學, 基準, 朝鮮語, 意味, 藝術, 新聞, 精神, 要求, 同時

3기의 주요 인접공기어를 정리한 〈표 6〉을 보면,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2기까지 늘 상위에 있었지만 1위를 차지하지는 못했던 연구 항목이 수위에 올랐다. 3기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하는 행위가 연구로서 굳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최소한 신문지상에서 운동을 둘러싼 논쟁이 위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점에서 3기는 ‘과학적’ 담론과 관련하여 공개적인 운동의 쇠퇴와 학문적 모색이 강화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다시 다섯 개의 범주에 따라서 확인해보자. 먼저 주체·대상과 관련해서는 조선이 여전히 상위에 있고 사회와 생활 등이 함께 나타난 상황에서, 철학, 역사, 철자법, 조선어, 예술, 기술, 과학, 문학, 작품 등이 비슷한 위치에서 확인된다. 학예면의 활성화와 함께 ‘과학적’ 연구 대상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시간의 범주에서는 1931년에 금일, 1933년에 현대·현대적 이외에 특별한 인접공기어가 없지만 역사가 중요하게 부상하는 것을 통해 과거까지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위의 자세와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했듯이 연구의 지위가 확고해졌고 그와 함께 태도도 중요하게 거론되었다.

행위의 내용에서는 방법을 비롯해 여러 가지 항목들이 경쟁적으로 등장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설명, 응용, 이용, 발명, 근거, 관찰, 발견, 문제 등이다. 그런데 분석이 1933년에 처음으로 순위에 오르고, 비평이 1934년에 행위의 내용을 의미하는 말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앞서 열거한 과학의 방법들이 대개 사실을 증명하거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들이었다면, 분석과 비평은 특정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비판의 목적이 개입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분석의 사전적 의미는 “엄격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눔. 개념이나 문장을 보다 단순한 개념이나 문장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명료하게 함. 복잡한 현상이나 대상 또는 개념을, 그것을 구성하는 단순한 요소로 분해하는 일”이다.<sup>25)</sup> 또한 비평은 “사물의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따위를 분석하여 가치를 논함. 남의 잘못을 드러내어 이러쿵저러쿵 좋지 아니하게 말하여 퍼뜨림”이라는 의미이다.<sup>26)</sup> 이렇게 본다면 이론, 법칙과 함께 행위의 내용에서 비판적 가치를 추구하는 말이 함께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행위의 가치·지향과 관련된 말들은 2기와 비슷하게 발달, 진보 등의 개념이 함께 확인되고 있다.

결국 1930-1934년 사이 3기의 인접공기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과학적’이라는 말이 학문과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정도가 더 강화된다는 것이고, 이 가운데 신문지상에서 역사·언어·문학 등 분과별 연구의 기준으로 ‘과학적’인 것이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가운데 ‘과학적’인 기준과 내용이 풍부해지고 있으며 방법적 분화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2023년 1월 23일 검색).

2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2023년 1월 23일 검색).

〈표 7〉 1935-1939년(4기)와 1940년(5기)의 연도별 인접어 상위 20개

순위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0	研究, 方法, 必要, 事實, 朝鮮, 科學, 發展, 同時, 精神, 智識	方法, 研究, 認識, 朝鮮, 歷史, 根據, 科學, 事實, 文學, 勿論	方法, 研究, 態度, 批評, 認識, 科學, 作品, 必要, 生活, 發見	研究, 方法, 認識, 概念, 事實, 問題, 作家, 結果, 科學, 必要	精神, 研究, 科學, 事實, 智識, 基礎, 對象, 方法, 技術, 必要	研究, 方法, 科學, 批評, 必要, 精神, 問題, 現代醫學, 意味, 科學的精神
-20	勿論, 理解, 問題, 態度, 組織, 以上, 思想, 世界, 經營, 說明	問題, 態度, 思想, 說明, 今日, 現實, 理解, 方面, 同時, 人生	作家, 把握, 今日, 理論, 勿論, 精神, 文化, 同時, 努力, 歷史	自己, 真理, 發展, 現實, 精神, 對象, 勿論, 根據, 分析, 世界觀	傾向, 確實, 今日, 檢討, 知識, 經營, 理論, 自己哲學, 生活	世界觀, 朝鮮, 態度, 世界, 認識, 哲學, 創作, 以上, 發達, 勿論

마지막으로 5기가 1940년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표 7〉을 통해서 4기와 함께 정리해보았다. 이 시기에는 주체·대상과 관련해서는 역사와 작품, 작가, 경영 등이 순위에 올랐다. 다만 1기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항목이지만 정신이 1930년대 말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또한 시간과 관련해서는 금일, 현실이 확인되며, 행위의 자세로서는 연구, 인식, 태도 등이 앞 시기와 거의 동일한 위치를 차지했다. 행위의 내용도 이해, 분석 등이 나오는 앞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행위의 가치·지향도 발전 개념이 계속해서 확인되는 등 3기와 비교하여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이 점에서 4기와 5기 즉 1930년대 후반에도 ‘과학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1930년대 전반기의 3기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두 신문이 언론통제의 압박을 받고 전쟁과 ‘국책’ 수행을 위한 기획·연재 등을 게재했으나, ‘과학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 시기와 비교했을 때, 과학의 방법을 가리키는 행위의 내용들에 대한 항목 건수가 상위 20개 안에서 줄어든 것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은 1930년대 후반기에 ‘과학적’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활용되더라도, 세부적으로 과학의 방법을 거론하기보다 ‘과학적’인 자세를 당위론

적으로 앞세우면서 통치권력과 갈등하지 않는 기사들이 늘어가고 있던 추세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각 시기별로 각 연도의 인접공기어 상위 20개를 검토하여 '과학적'이라는 말의 활용 맥락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기에는 사회주의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항목이었고, 따라서 과학적 사회주의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과학적'이라는 말이 활용되는 비중이 높았다. '과학적'인 것의 의미는 불명확한 채 사물을 자세히 파악하는 기본적인 방안으로서 활용되었다. 둘째, 2기에는 생활·현실과 관련한 운동적 접근이 신간회운동, 생활개선운동 등과 함께 나타나면서 '과학적' 담론을 이끌었고, '과학적' 행위의 내용이 풍부하게 제시되기 시작했다. 또한 법칙과 이론이 순위에 나타나는 등 다양한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문예·예술 방면으로 '과학적' 담론이 확장되었다. 셋째, 3기에는 '과학적' 행위와 연구의 상관성이 공고해지고 학문과는 가까워지되 운동과는 멀어지는 양상이 드러났다. 그리고 '과학적' 담론이 나타나는 학문 영역도 역사·문학·어학 등 세분화되고 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과학의 방법들이 다채로워지고 그 가운데 분석과 비평 등 비판적 가치를 추구하는 개념들이 등장했다. 즉 '과학적'인 의미가 분화하는 시점으로 3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4기와 5기에는 3기와 대체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지만 행위의 내용을 구성하는 과학의 방법들이 건수에서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 점은 '과학적'이라는 말이 일제 말기까지 계속해서 이용되지만, '과학적'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이 점차 빠져가면서 '과학적'인 것을 당위적으로 주문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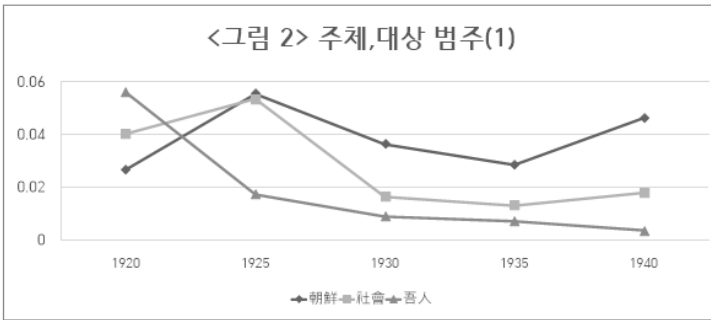
### Ⅲ. ‘과학적’이라는 말의 의미 경쟁 양상

Ⅱ 장에서는 ‘과학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시기별로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상위 20개 인접공기어를 정리했는데, Ⅲ 장에서는 5개 시기의 인접공기어 상위 30개를 추출하여 검토하였다. 5년 단위로 인접공기어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과학적’이라는 말의 의미 경쟁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8>은 1기부터 5기까지 인접공기어 상위 30개를 순위별로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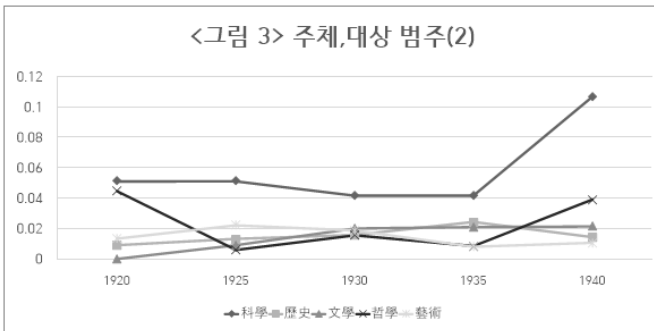
<표 8> 다섯 개 시기의 인접공기어 상위 30개

순위	1기	2기	3기	4기	5기
-10	社會主義, 知識, 研究, 基礎, 吾人, 主張, 科學, 文明, 方法, 哲學	研究, 必要, 方法, 朝鮮, 社會, 科學, 態度, 智識, 知識, 思想	研究, 方法, 態度, 科學, 事實, 必要, 朝鮮, 知識, 問題, 批評	研究, 方法, 科學, 認識, 事實, 必要, 精神, 態度, 問題, 勿論	研究, 方法, 科學, 批評, 必要, 精神, 問題, 現代醫學, 意味, 科學的精神
-20	思想, 事實, 精神, 觀察, 發達, 事會, 必要, 態度, 結果, 智識	事實, 生活, 朝鮮人, 精神, 努力, 基礎, 迷信, 理論, 普及, 教養	發達, 同時, 根據, 結果, 理論, 應用, 意味, 說明, 生活, 認識	朝鮮, 根據, 同時, 批評, 歷史, 今日, 把握, 結果, 知識, 現實	世界觀, 朝鮮, 態度, 世界, 認識, 哲學, 創作, 以上, 發達, 勿論
-30	普及, 如何, 傾向, 發明, 方面, 進步, 證明, 根據, 人類	發達, 說明, 問題, 今日, 運動, 文藝, 結果, 意味, 現實, 組織的	勿論, 發見, 進步, 以上, 發展, 文學, 組織, 理解, 利用, 藝術	作家, 發展, 分析, 生活, 文學, 理論, 思想, 自己, 發見, 正當	嚴密, 映畫, 發見, 思想, 決科, 基礎, 文化, 科學的方法, 樹立, 現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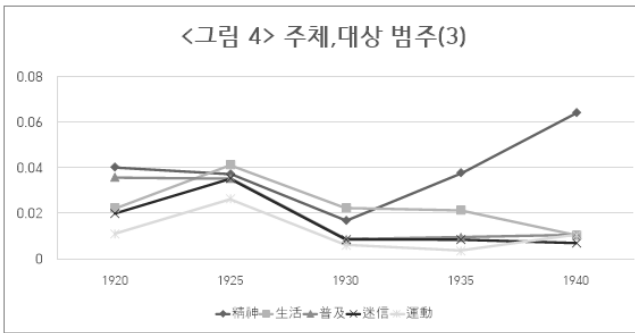
<표 8>의 항목을 일일이 다시 확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표 4>부터 <표 7>까지의 분석 과정에서 중요하게 꼽았던 항목과, 분석을 위해 설정했던 다섯 개 범주 안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항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과학적’이라는 말의 의미 경쟁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제일 먼저 주체·대상과 관련된 범주 가운데 중요 항목을 세 개의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자. <그림 2>에서 눈여겨 볼 것은 조선 항목은 전시기를 걸쳐서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고, 사회도 빈도 상에서 적지 않지만 3기부터는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인의 경우 1기에만 많이 등장했을 뿐, 실제로는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면 '과학적'이라는 말은 조선이라는 주체, 그리고 조선이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겨누고 있었고, 사회가 경쟁하고 있었지만 3기 이후부터는 과학을 바탕으로 한 '사회에 대한 상상'도 위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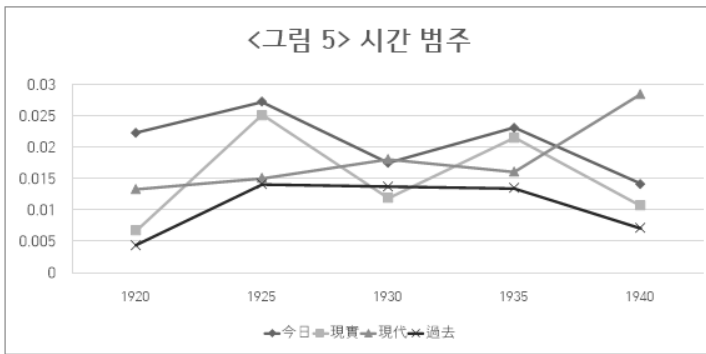


〈그림 3〉은 주로 ‘과학적’인 대상이 되는 학문의 영역과 관련된 항목들의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과학이 자연과학의 의미도 갖지만 학문 일반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가장 많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역사와 문학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예술은 3기를 최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철학은 1기에 가장 높았고 감소 이후 소폭 증가했다. 역사와 문학, 예술은 학예면과 학문장의 확대의 결과 ‘과학적’ 논의가 중요해진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며, 철학은 과학적 사회주의가 거론되었던 1기가 다소 특이하게 빈도가 높았고 점차 다른 학문 분야들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그림 3〉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점은 ‘과학적’이라는 말이 학문 영역에 적용되고 빈도가 유지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학문 영역 이외 다른 항목들을 압도하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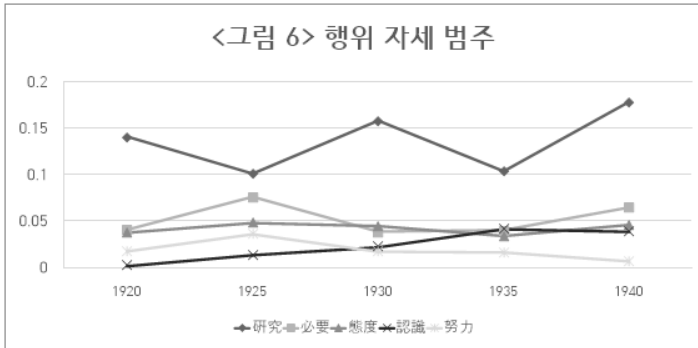
〈그림 4〉는 ‘과학적’이라는 말과 운동의 관련성을 검토했다. 운동 항목은 전체 시기 인접공기어 순위에서 90위 대에 있던 것이지만 II장에서 살펴본 듯이 2기에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보급도 II장에서는 행위의 자세와 관련된 용어로 분석했지만, 생활, 미신 등과 비교하기 위해서 함께 살펴봐왔다. 운동을 포함하여 이상 네 개 항목은 모두 2기에 높아지고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정신 항목은 오히려 3기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정신은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한 성취해야 할 가치·지향으로 구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림 4>는 <그림 3>과 연관시켜 볼 때, '과학적'이라는 말이 3기를 경과하면서부터 운동의 영역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그림 5>는 시간의 범주와 관련하여 금일, 현실, 현대, 과거 등 네 개 항목의 추이를 비교해본 것이다. 앞의 세 가지 등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한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변화 경향이 없다. 과거 항목은 전체 시기 인접공기어 상위 50위 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재와 관련된 개념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포함시켰다. 과거도 2기와 4기까지 많지 않으나 꾸준히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과학적'이라는 말은 언제나 현재를 의식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일반적인 결론과 과거 역시 행위의 시간적 대상으로 포함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와 과거 중 어떠한 것이 더 많이 이용되느냐 하는 점으로 '과학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거와 현재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사고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II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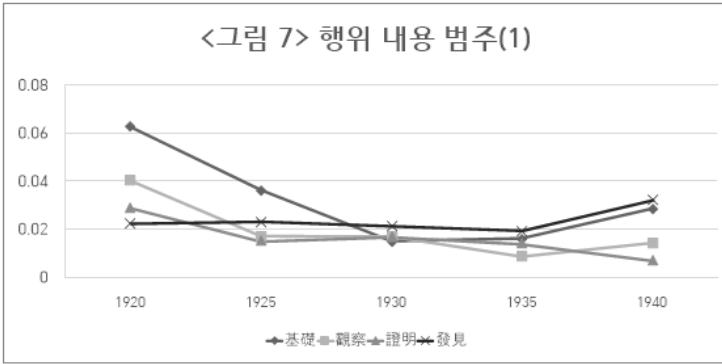
검토했듯이 가치·지향 범주에서 발달, 발전 등이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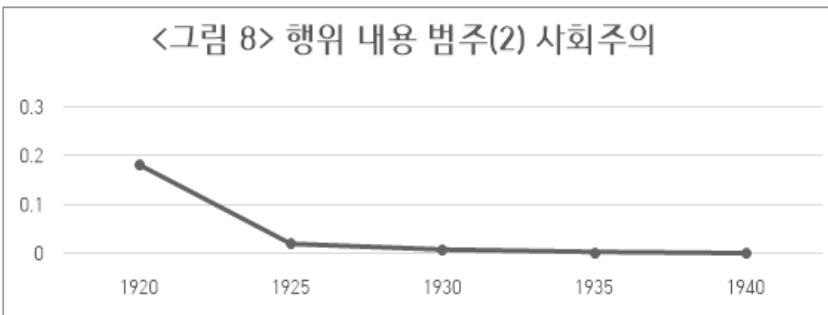
〈그림 6〉은 ‘과학적’ 행위의 자세 즉 여러 방법들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의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인접공기어에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한 연구, 필요, 태도, 인식, 노력 등 다섯 개를 뽑았다. 일단 연구의 빈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3기에 크게 상승했다가 4기에 다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가 다른 어떤 말들보다 높은 빈도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거론된 시기는 1930-1934년 시기이고, 이는 〈그림 4〉에서 운동과 관련된 항목들이 같은 시기 감소하는 것과 비교된다. ‘과학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경쟁하는 첫 번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 필요 항목의 추이를 보면, 필요성을 당위적으로 강조하는 용법은 2기에 운동의 빈도가 높을 때 상대적으로 증가하다가 3기에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다. 노력 역시 그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만큼 운동 및 실천 영역과 관련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태도는 꾸준히 높은 수치를, 인식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과학적’인 것을 대하는 자세 자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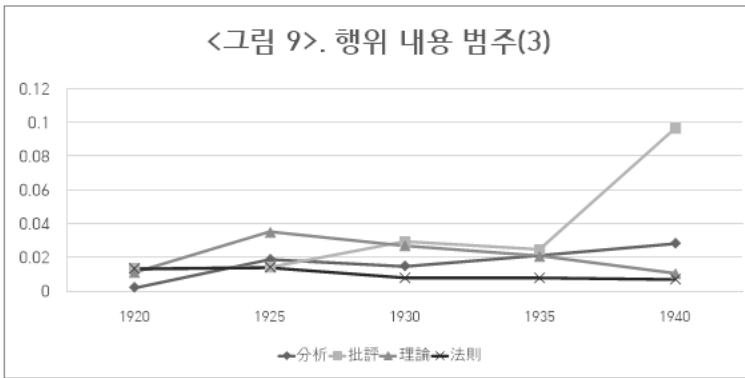
전체 시기를 거쳐 계속해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과학 방법의 적용이 직접적으로 드러났던 행위 내용 범주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이다. <그림 7>은 1기부터 높은 빈도를 보였던 기초, 관찰, 증명, 발견 등의 시기별 추이를 표시한 것이다. 5기에서 상승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제4기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찰과 기초가 그러한데, '과학적'인 것의 요구 수준이 단지 현상을 그대로 정리하는 단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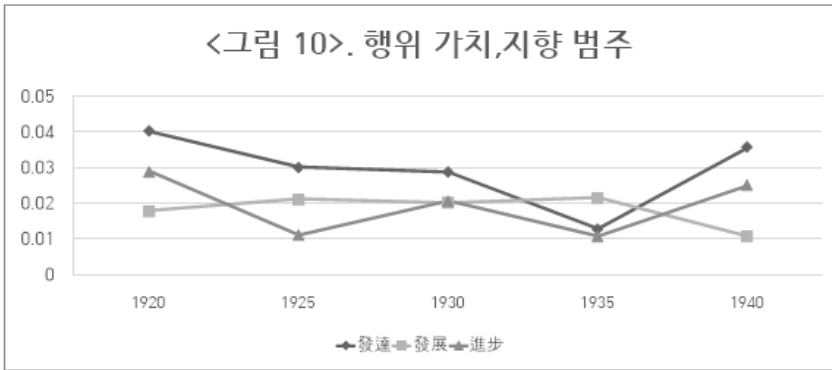


행위 내용 범주와 관련해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사회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크게 감소하는 것이다. ‘과학적’이라는 말의 공기어로 사회주의가 나오게 된 것은 당연히 과학적 사회주의에 대한 소개 때문인데, 어떻게 갑자기 사회주의라는 공기어가 소멸했을까. 사회주의 용어를 네이버 뉴스라이브리에서 검색해 보면, 1923년에 338건을 기록했고, 1924년부터 200건이 넘지 못했다. 사회주의를 직접 표현하는 빈도가 줄었으나 검열 등으로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최소한 사회주의의 내용과 방법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개념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림 9>는 행위 내용 범주 가운데 분석, 비평, 이론, 법칙 등의 시기별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법칙은 사실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인접공기어 내의 출현 빈도도 높지 않은 편이다. 이론도 192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면, 연구보다는 현실 운동 쪽에서 더 강조되었던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분석과 비평 두 가지는 3기와 4기에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분석과 비평이 사회주의의 내용과 방법의 일환이라고는 당연히 볼 수 없다. 그러나 과학의 방법을 보여주는 말이면서도 <그림 7>에서 본 근대 과학의 기본적 방법들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가운데, 가치를 지향하고 기성의 인식과 견해에 대한 비판을 담은 용어 사용이 증가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경향이다. 이 점에서 주로 1930년대 즉 3기와 4기를 거치면서 행위 내용들을 중심으로 ‘과학적’이라는 말을 둘러싼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그 가운데 의미 분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림 10>을 통해 행위의 가치·지향 범주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림 10>에서는 다른 항목들은 제외하고 발달, 발전, 진보와의 관계만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말들이 ‘과학적’이라는 말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가장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굴곡은 있지만 1기부터 4기까지 완전한 감소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고, 5기의 경우에도 추출 용례가 적은 한계가 있지만 발달과 진보는 ‘과학적’이라는 말과 함께 등장한다. 이상이 의미하는 바는 ‘과학적’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조건에서든 발전 개념을 내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1920년부터 1940년까지 전체 시기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즉 어떤 이념과 체제에서든 최소한 근대는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태도가 공통적으로 깔려 있었고, 그것이 발전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프 분석을 통해 ‘과학적’이라는 말의 인접공기어 추이를 검토하였다. 이 가운데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체·대상과 관련해서는 조선과 사회가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조선이 주체이자 대상으로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고 대상과 관련해서는 운동과 학문이 ‘과학적’ 담론에서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둘째, 시간 범주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발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전체 시기동안 유사한 추이를 보인다. 셋째, 행위 자세 범주에서는 연구와 태도 등이 1기부터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고, 그 빈도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넷째, 행위 내용 범주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1기에 높은 비중을 보였던 관찰 등이 후퇴하고 또 사회주의 내용이 대폭 감소하면서 3기 이후 분석과 비평이 큰 폭은 아니더라도 상승하는 추세를 확인했다. 이는 과학의 방법이 심화되면서 비판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자리 잡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행위의 가치·지향 범주에 속하는 발전 등의 용어는 전체 시기동안 꾸준히 함께 이용되면서, ‘과학적’인 것은 어떠한 이념과 체제에서든 발전을 지향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맺음말

1920년에서 1940년 사이 ‘과학적’이라는 말을 거시적으로, 텍스트 마이닝 방법에 의해서 분석하고자 한 이 글은, 연도별로 이용되는 빈도, 각 시기

별 활용 맥락, 시기별 의미 변화 등 세 가지 점을 검토했다. 본문을 통해 밝힌 점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과학적’이라는 말의 이용 빈도를 통해 1920년대에 비해서 1930년대에 ‘과학적’ 담론이 확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적’이라는 말은 기사 형태상으로 볼 때 사실을 보도하는 뉴스보다는 입장과 주장을 담은 사설과 기획·연재, 논설, 칼럼 등을 합친 쪽에서 더 많이 이용되었다. 즉 신문의 증면 경쟁과 학예면의 활성화 등을 배경으로 기사의 작성자가 주관적·의도적으로 사용한 말이었다.

둘째, 5년 단위로 1기부터 5기까지 각 연도별 상위 인접공기어를 일일이 검토한 결과 1기에는 과학적 사회주의 소개 차원에서, 2기에는 신간회운동·생활개선운동 등의 목적에서, 3기에는 학문 연구의 확대와 방법론 강구의 차원에서, 4기·5기에는 3기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면서도 구체적 실체가 없는 당위적 표현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즉 ‘과학적’이라는 말도 각 시기마다 유행하는 배경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이라는 말에 어떠한 의미가 담기는지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

셋째, 주체·대상, 시간, 행위 자세, 행위 내용, 행위의 가치·지향 등 다섯 개 범주로 5개 시기의 인접공기어의 추이를 분석하였는데, 먼저 전 시기를 통해서 조선의 현재적 발전을 위해서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일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렇지만 ‘과학적’ 담론이 경쟁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는데, 1920년대까지 ‘과학적’ 운동이 강조되었다면 1930년대 이후 ‘과학적’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 또한 1920년대까지 관찰 등의 기본적인 과학의 방법이 강조되다가 1930년대 이후 분석, 비평 등의 비중의 증가는 ‘과학적’이라는 말에 비판적 가치가 담기기 시작함을 의미했다.

이 글은 ‘과학적’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연구의 방향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했다. 데이터 정리와 분석 방법 등에서 미숙한 점이 많지만, ‘과학적’이라는 말이 일관되게 발전지향적으로 사용된 점과 그 안에서 의미 경쟁의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러나 ‘과학적’ 방법을 둘러싼 의미 경쟁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정리가 한 차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예면에 수록된 기사만을 수집·분석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논문투고: 2022.12.18, 심사완료: 2023.02.01, 게재확정: 2023.02.01)

## 참고문헌

### 〈자료〉

『한성순보』, 『황성신문』, 『신문계』, 『동아일보』, 『조선일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https://www.nl.go.kr/newspaper>)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http://waks.aks.ac.kr/>)

### 〈연구서〉

박찬승,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3 인문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디지털 인문학과 근대한국학 : 디지털의 눈으로 한국학을 읽다』, 소명출판, 2020  
장 신, 『조선·동아일보의 탄생』, 역사비평사, 2021  
조선일보100년사편찬실, 『조선일보100년사(상) 민족과 함께 한 세기』, 조선일보사, 2020

### 〈연구논문〉

이재연, 「키워드와 네트워크-토픽 모델링으로 본 『개벽』의 주제 지도 분석」, 『상허학보』 46, 2016  
허 수, 「어휘연결망을 통해 본 '제국'의 의미-『제국주의』와 '제국'의 의미-『제국주의』와 '제국'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7, 2014  
\_\_\_\_\_,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본 1980년대 '민중'-『동아일보』의 용례를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18, 2016

[ABSTRACT]

## Text Mining Analysis Of Colonial-era *Dong-A Ilbo* And *Chosun Ilbo* on the Meaning of ‘Scientific’

Cho, Hyong-Yerl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the frequency of use of the word ‘scientific’ by year, the context of use by each period of 5 years, and changes in meaning through text mining analysis of two representative Hangeul newspapers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intention was to contribute to the study of ideological topography and academic activities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by grasping the macroscopic trend in which the word ‘scientific’ is used based on NAVER News library data. The following are revealed through this article. First, the frequency of use started with 36 cases in 1920 and reached the peak with 400 cases in 1934, and in general, the upward trend continued. In terms of article form, in fact, it was used more in editorials, special articles/serials, and columns than in news reports. It seems to have been influenced by the installation of arts and letters pages along with competition for increase in newspaper pages, and the word ‘scientific’ was consciously used by article writers, and the 1930’s was the period during which the ‘scientific’ discourse spread.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op 20 adjacent co-occurring words, in the first period, the word 'scientific' was used for the introduction of scientific socialism, and in the second period, it was with regard to the Shinganhoe Movement and the Movement for the Reform of Living, and in the 3rd period, as the correlation with research increases, various methods which form the contents of actions were mentioned, and in the 4th and 5th periods, the word 'scientific' was used normatively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Third, as a result of classifying adjacent co-occurring words into 5 categories and examining changes, 'Joseon' was mentioned frequently as a subject/object, and 'research' steadily received attention, whereas 'Movement' had been used less frequently since the 1930's. In the time category, the view that science must exist for 'today' and 'reality' was basically confirmed, and as for the behavioral attitude, 'research', 'necessity', and 'attitude' consistently recorded high frequencies. In terms of the contents of actions, 'observation' and 'socialism', which showed a high proportion in the first period, decreased significantly, and 'analysis' and 'criticism' increased slightly after the third period. This is a case in which the critical value was noticed along with the deepening of the scientific method. In the action value and orientation category, it was confirmed that the word 'scientific' was used with the hope of 'development' and 'advance' during all periods.

Key words : 'scientific', Hangeul newspaper, text mining, NAVER News library, co-occurring word